‘멈추지 않는 포교 원력’ 부처님께 발원

우리절 대법화원, 6월 19일 부처님 점안법회 봉행

10번째 중생 위한 불사 도량
다채로운 프로그램 무료제공
전국서 찾은 불자, 축하 이어
지역민 눈높이 맞춘 포교 전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우리절 대법화원은 6월 19일 부산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참 나를 찾는 행복이 가득한 절 ‘우리절 대법화원’이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주지 대풍 스님이 불사한 10번째 도량으로 포교와 불사 원력의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우리절 대법화원(주지 대풍)은 6월 19일 부산 남구 용호로 132번지 용성빌딩 5층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은 점안의식에 이어 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서는 내빈들의 인사말 및 축사 등이 이어졌고, 무공 스님(전 통도사 율원장)이 법문을 통해 새롭게 문을 연 도량의 의미를 대중에게 강조했다.

점안식은 통도사 전 율원장 무공 스님(신해사 회주)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대풍 스님을 비롯해 승가공동체 회장 도연 스님 및 스님들과 최윤희 前 합참의장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아울러 BTN 불교TV 진심법문과 유튜브를 시청하고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은 대법화원이 정법 도량으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했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이날 석가모니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등 3존불과 약사여래, 지장보살, 신중탱화 등을 점안했으며 대중들은 부처님의 나투심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합장했다.

대풍 스님은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도심 정법도량으로 성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과 몸의 정화를 위해 산속에 있는 사찰을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서 수행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행복을 바라지만 부처님의 인과법을 모르고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몰라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 이곳 가까운 곳에서 매일 부처님을 만나 업을 녹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라 도량을 열고 포교하기에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계산하고 망설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원력을 다해 부산을 넘어 전국에 살아있는 포교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우리절 대법화원은 법화도량으로 기도와 신행 뿐 아니라 불자들의 삶속에 불교의 가르침이 살아 있는 생활법문 도량을 목표로 한다. 또 불교문화를 통해 다도, 서예, 꽃꽂이, 불화그리기, 노래, 선체조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료 천도재를 봉행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무료급식 등을 통해 자비 나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대풍 스님은 “이 지역은 과거부터 환경이 열악해 많은 지역민들이 어려운 삶을 견디고 고통의 삶을 살아왔다. 지역민에게 맞는 포교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교실과 불교문화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모든 연령층이 불교를 만나고 편하게 접하도록 돕고 힐링을 선물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천도재와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해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 안국사 상량식…10월 준공

“불교와 문화로 시민의 쉼터 될 것”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창원 안국사(주지 법본)가 6월 17일 상량식을 봉행하고 막바지에 이른 불사 소식을 알렸다.

상량식은 1부 불공의식 및 어울림 다올 국악단의 바라춤에 이어 2부 상량식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식은 내빈들의 헌향과 헌다, 헌화에 이어 경과보고, 인사말, 상량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안국사 주지 법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국장 스님들과 황동열 홍기건설 대표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안국사는 경남 창원 육군 39사단 호국법당(구, 정심정사)이었으나 육군 39사단이 이전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조계종과 통도사는 부처님의 도량을 수호하기 위한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 안국사 존치위원회를 구성, 안국사를 지켜냈고 지난 2020년 2월 4일 기공식으로 착공을 알렸다. 2021년 5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안국사는 6월 17일 안국사 3층에서 상량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삼성각 낙성식 봉행

현문 스님 “김해 대표 포교당 되길”

통도사 김해 포교당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6월 20일 경내 5층 삼성각 앞에서 낙성식을 개최했다.

바라밀선원 삼성각은 목조한옥 양식으로 통도사 산령각을 모방하여 건립됐으며 재물과 수명, 복을 상징하는 칠성, 독성, 산신이 봉안됐다. 쌍사자 석등과 탱화로 장엄됐으며 옥상인 5층에 건립돼 도심 포교당 내 산신각을 봉안하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됐다.

낙성식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이웃을사랑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 통도사 박물관장 송천 스님, 정분남 부산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바라밀선원는 6월 20일 경내 5층 삼성각 앞에서 낙성식을 개최했다.

낙성식은 △삼귀의△찬불가(보행행원)△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법어 △주지 인해스님 인사말 △음성공양△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기도를 할 때 대중들은 지극정성으로 하고 봉사와 배려로 삶을 일궈야 소원성취가 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종교 넘어 지역 열린 문화공간으로…

울산 해남사, 6월 21일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앞장서 온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가 시대에 발맞춘 ‘쉼을 위한 복합문화도량’으로 발돋움 한다.

해남사(주지 혜원)는 6월 21일 경내 마당에서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을 개최했다.

문화공간 해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 북카페를 비롯해 2층에는 음악과 영화감상, 문화 강연이 열리는 다목적 강연실이 마련됐다. 또 북카페 앞에 조성된 잔디밭 마당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연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예술인들을 위한 후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해남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대인에게 필요한 쉼을 제공하고 종교와 구분 없이 절을 찾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확장돼 의미가 크다.



해남사는 6월 21일 경내 마당에서 ‘문화공간 해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경과보고 및 주지 혜원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내빈들의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개소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시설 라운딩 순으로 이어졌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개원을 준비한 주지 혜원 스님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울산 해남사는 어려운 식민지 시절에 믿음으로 민족을 위로하며 도심포교 도량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제는 변화에 발맞춰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문화공간이 꽃피는 공간으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경술국치 이후 통도사는 전국에 33개의 포교당을 세웠고 해남사는 그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졌다.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함께한 도량이다. 시대에 발맞춘 포교로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잇는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많은 이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위로를 선사할 공간을 설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문화를 위해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는 혜원 스님께 항상 많은 것을 배운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장소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해남사가 위치한 울산 중구 북정동은 원도심으로 문화 혁신 개발 지역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남사 앞 100m 가량 떨어진 동헌(울산 유형문화재 1호)을 중심으로 시립미술관이 올해 문을 열 예정이며 문화 예술전문도서관이 잇따라 들어선다. 또한 조선시대 울산 객사터를 복원하는 공원이 해남사 앞에 새롭게 조성 될 예정이다. 말 그대로 문화혁신 중심 지역으로 변모된다. 이에 발맞춰 해남사는 종교를 넘어선 문화 도량으로 새롭게 정비하고 시민을 위해 쉼을 제공하는 장소로 발돋움한다는 의지이다.

주지 혜원 스님은 “해남사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된다. 문화중심센터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포교당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고성 와룡산 운흥사, 제 291회 영산대재

운흥사(주지 월암)는 6월 19일 운흥사 경내에서 ‘제291회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영산대재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 문수암 주지 이암 스님, 백두현 고성군수, 이승연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 후 법요식,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등이 진행됐다.

운흥사 주지 월암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늦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감사하다”며 “국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다시 한 번 이 겨레와 강토를 지켜낸 승병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그 뜻을 기리고, 영산재가 한줄기 빛으로 가신 분들의 업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흥사는 6월 19일 운흥사 경내에서 ‘제291회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